

느슨한 단속 틈타 불법 대부업체 '활개'

도심 길거리 곳곳 홍보 전단지 무차별 배포 제도권 금융 거래 어려운 영세업자들 노려

불법 대부업체들의 영업행위가 경찰 등 관계기관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변화가부터 아파트·원룸밀집지역 등 주택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전단이 뿌려지고, 심지어 재래시장을 파고 들어 서민들을 유혹하는 등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각종 찜라시를 통한 광고와 텔레마케팅 그리고 직접 상가나 점포를 찾아 대출을 권유하는 등 적극 행해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나 주부, 학생들의 경우 불법 대부업체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4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남구 봉선동 등 상가점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심 거리 곳곳에 주춤하던 대부업 관련 전단지와 각종 명함광고 등

이 마구 뿌려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 등이 최근 몇 년 동안 도심환경 정화와 사금융 폐해를 막기 위해 꾸준한 단속으로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경기불황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명함광고는 심야시간대 대부업 관계자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유흥가와 원룸밀집지역을 돌며 시간당 400~500정도를 뿌리고 있다.

광고전단지엔 ▲장사하시는분 환영 ▲원투룸 보증금 전세금 ▲자동차 구입속 담보대출 ▲업소여성 여사장님 환영 ▲당일대출 100%, 온라인 거래 가능 등의 문구를 삽입해 급전희망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부업체는 '공식등록업체'나 공정거래위원회 마크까지 삽입해 합법적인 대출업체로 위장하기도 한다.

현행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부업 신고를 하지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건물에 대부업 광고 전단지가 바닥에 마구 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않은 채 영업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인 25%를 초과해 돈을 빌려 주는 행위 ▲등록 대부업체에도 연 27.9%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이런 업체들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주부·대학생 등이 타깃이 돼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는 광주 주

요 도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원룸밀집지역까지 깊숙히 파고 들고 있다.

1층에 은행이 입점된 남구 봉선동 5층 건물의 한 관리인은 "매일 뿌려대는 대부업 광고전단지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매우 지저분하다"며 "상가와 주변 주차장 곳곳에 버려진 전단지로 청소 관계자들이 힘들어 한다"고 토로했다.

서구 치평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

고 있는 정 모씨(40)도 "최근 느슨한 단속을 틈타 대부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곳 주변을 돌며 명함전단을 밤 10~11시 사이에 마구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까지 불법대부업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한 시장 상인은 "6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이 최근 '이율이 낮은 급전을 사용하라'고 전단지를 놓고 갔다"며 "점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출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대부업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지역금융권에 따르면 관내 불법 대부업 시장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용자 역시 갈수록 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 근절을 위해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이용자의 금융거래 주의가 요구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라도 애초에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7	흑산도	6~8
담양	-1~8	구례	-1~10
화순	-1~9	곡성	-2~8
영광	-1~7	완도	4~10
함평	1~9	강진	2~10
무안	1~7	장흥	1~11
영암	0~9	해남	2~9
진도	3~8	고흥	5~11
신안	2~8	보성	-1~10

일출 07:25 일몰 17:20
월출 05:00 월몰 16:11

목포	만조 00:18 12:15	여수	만조 07:56 19:55
	간조 05:43 18:17		간조 01:18 13:5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모델 50대 여성 살해범 긴급체포 경찰, 객실 빌린 20대 추적해 검거

광주의 한 모텔에서 중년여성의 양 손과 신체를 묶어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정 모씨(26)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전날 오전 6시 50분부터 오전 10시 사이 북구 유동 한 모텔에서 김 모씨(57·여)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휴전 카드로 김씨는 캔맥주 등 1만여원을 사용했으며, 정테이프로 창문 틈을 가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테이프 또한 범행 전 모텔 인근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서 광주로 내려온 김씨가 '일을 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친인척과 헤어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고, 수색 끝에 지난 3일 오후 9시 10분께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당시 김씨의 시신은 양산등이 정테이프에 묶인 채 모텔방 화장실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김씨가 질식사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4일 오후 4시 50분께 동구 계림동 한 모텔에 은신 중인 정씨를 체포했으며, 정씨는 SNS 어플을 통해 김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와 수사상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살해 및 절도도 적용할지 강도강간으로 적용할 지 등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 중학교서도 '스쿨 미투'

시교육청 성비위 대책 '공염불'...경찰, 수사 착수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터진 교사 성비위로 학교현장의 성인식 수준이 다시 민낯을 드러냈다.

이단 '스쿨 미투' 사건에 서둘러 마련한 교육당국의 대책도 약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모 중학교 3학년 22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피해를 직접 보거나 목격했다는 진술한 학생은 30여명에 달한다.

조사과정에서 나온 피해내용은 혀를 차게 한다.

여학생 다리 위에 앉거나 얼굴·영덩이 등을 만지는 등 교사들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피해를 호소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

심지어는 교복 치마가 짧아지며 사진을 찍었다고 위협한 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가해교사로 지목된 4명을 학생과 분리 조치했다. 교육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해당 교사들을 불러 학생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올해 광주에서는 교사 성 비위·추문이 잇따랐지만 이번 사건의 충격은 특히 더하다.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다가 교육청이 종합적인 성비위 대책을 발표한 뒤에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학생들의 피해신고로 두 고교에서 교사 19명과 17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또 다른 고교에서는 교장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해임됐다.

전직 기간제교사는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성적



청년간부회의 자선모금 4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자선모금 청년마켓' 행사에서 북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년간부회의 회원들이 주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만든 수제청을 판매하고 있다.

까지 조작해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성인식 개선팀을 신설하고 지난 10월에는 '성희롱·성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성인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고체널 다양화, 성비위 교사 교단에서 배제, 외부기관 용역을 통한 실

태조사,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과 사례보급 등이 핵심내용이었다. 서둘러 내놓은 대책은 학교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서미에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양 223-2378 010-3635-1195	총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61) 331-8790 010-6791-7107		
■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 목포(갑)지사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 목포(을)지사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 목포(병)지사	011-632-0323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3601-2060	장성지사 010-3666-1300
■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 나주(갑)지사	010-5617-2605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 나주(을)지사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 광양지사	010-3622-9898	해남지사 010-8181-2627	

광주광역시 북구 계림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 720-1080-82
편집국 : jndn@chol.com /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대표전화 061) 743-4200 / 팩스 061) 743-4202 / endlessha@hanmail.net
서부권본부 대표전화 061) 285-9816 / 팩스 061) 285-9818 / jmsb1000@naver.com